

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
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.

오렌지 카운티 전지역!

주택 / 아파트 / 상가 / 사업체 전문

REALTOR **데이빗 전**

(714)309-2355

오픈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·해운 물류서비스
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화물/이삿짐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갈갈 웃음

[너무 비싸서]

한 사료 제조회사에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신제품 프리미엄급 고급 개 사료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했다. 담당 직원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가 물었다.

참석자: "사람이 먹어도 됩니까?"

직원: "못 먹습니다."

참석자: "유기농 청정원료로 영양가가 높고 위생적으로 제조된 개 사료를 왜 먹지 못한단 말입니까?"

직원: "비싸서 못 먹습니다."

[스님들의 회의]

어느 절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.

스님들이 누구 책임인지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.

하루 종일 설전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들 지쳐있을 때, 한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선언했다.

"내가 십자가를 메겠소!"

[화난 이유]

일자무식인 조직폭력배 두목이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.

입금할 통장의 계좌번호를 깜빡 잊고 두고 온 두목은 전화를 걸었다.

두목: 너 통장 번호 좀 불러봐라.(계좌번호는 5489-6791-2569-0000이었다)

부하: 예! 형님.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. 5489 다시.

두목: 그래 다시.

부하: 6791 다시.

두목: (숨아오르는 화를 참으며) 그래 다시.

부하: 2569 다시.

두목: 너 죽고 싶냐? 나한테 장난치냐?

부하: ?? 아닙니다요, 형님! 정확하게 불렀는데요.

두목: 야! 침부터 잘 불러야지. 왜 자꾸 다시 다시 하나?

[누가 더 위대할까]

어느 날 밤 TV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를 중계하고 있었다. 화면 아래에는 쇼팽의 '베틀레'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. 부부가 나란히 앉아 콘서트를 시청하던 중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.

"저 곡을 작곡한 쇼팽이 대단하냐? 아니면 곡을 연주하고 있는 저 피아니스트가 대단하냐?"

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. "글쎄요..... 이해도 못 하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더 위대한 것 같지 않아요?"

[남자와 관련한 진실들]

- 남자는 돈 있으면 짝짓을 하고 여자는 돈 없으면 짝짓을 한다.

- 스킨십에 후진은 없다.

- 남자는 철들었을 때가 죽을 때다.

- 김태희랑 사귀어도 전원주랑 바람피우는 게 남자다.

- 양귀비도 3년만 데리고 살면 지켜워 못산다는 게 남자들의 지론.

- 남자가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자려는 거지 다시 잘 해보려는 게 아니다.

- 남자는 상처를 남기고 돈은 이자를 남긴다.

- 팬찮은 남자는 애인이 있고, 잘난 남자는 유부남이며, 완벽한 남자는 게이이다.

- 남친은 떠나도 명품백은 내 곁에 남는다.

-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은 없다.

- 남자가 연락 못하는 경우는 1 옥중, 2 상중, 3 무관심.

-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마라.

-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만큼 큰 착각은 없다.

- 싸가지 없는 여자가 필지언정 지켜온 여자는 되지 마라.

- 남자의 본질을 알기 전에 성분을 열어주지 마라.

-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 하고 못생긴 남자는 꼴값한다.

[우리 엄마]

전화를 받다가 태워 먹은 수많은 냄비들.

하지만 오늘도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다.

엄마는 실컷 친구와 수다를 나누다가 순간!

"애~! 잠깐만 기다려~. 가스 불 끄고 올게."

엄마는 자신의 영민함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가스 불을 끈다. 그리고 나서 아까 하던 김장 30포기를 마저 한다.

엄마는 그렇게 간단히 또 한 명의 친구를 잃어버렸다.

**주택 상가 리모델링
하우스 에디션 페인트**

- 부엌, 화장실, 마루
- 창문, 덱, 페티오
- 페인트 (In/Out)
- 플러밍, 전기
- 루핑, 타일
- 우드 펜스

119 Construction Lic #1058593
(714) 525-5600 119 S. Gilbert St.
Fullerton, CA 92833

Candice K. Kim (김경아)
714-373-6883
7645 Garden Grove Blvd
Garden Grove CA 92841

CA Insurance Agent #: 0B30329

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

Allstate
You're in good hands.

© 2019 Allstate Insurance Co. 9772519